

1사1촌 現場 ⑨ ... 現場 가산면 금현4리♥삼성화재 동서울지점

포도농사 農家일손 부족 큰 도움

화

가산면 금현4리는 둔병이(둔병이)마을로 불려지고 있다. 옛날부터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돌보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병자호란때 이 마을에 호병(胡兵)이 주둔했다고 해서 '둔병(屯兵)'이라 했다고 한다. 이 말이 변해서 '둔병이'가 되었다.(포천군지 1280쪽) 둔병이 마을에는 150가구에 4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7~8가구가 포도농가로 2만 여원에 포도를 재배해 연 1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금현4리(이장 박찬성)와 삼성화재 동서울지점(지점장 김요규)은 2005년8월24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에 들어갔다.



김요규 삼성화재 동서울지점 대표이사

삼성화재 동서울지점(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2 삼성화재빌딩 15층)은 내근 25명, 판매직 32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인건비·도덕성을 바탕으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요규 지점장은 "포도 집가지

치기 일손부족에 나서 농촌체험 활동을 통해 회사와 농촌이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임직원들은 '실시일반캠페인'으로 결연 마을 쌀을 구입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농산물을 자매결연 마을에서 구입하여 노숙자 무료배식인 청량미 밥과 등에 기부해 하기도 한다.

금현4리 박찬성(사진·54)이장은 "지난 4월 삼성화재 동서울지점 직원 25명이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도 가지치기를 도와주기 위해 금현 4리를 방문했다"며 "내 일처럼 열심히 해주는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요규 지점장은 "저희가 농가에 특별한 큰 도움은 되지 않

만 봉사를 하고 나면 마음도 편해지고 농촌을 접해보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경험도 되고 임직원들간의 하나됨을 느낄수 있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자매결연 마을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동서울지점은 봉사활동 동기금조성은 임직원의 드림펀드와 회사 1사1촌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성 이장은 올해까지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와 농촌간의 연결고리 1사1촌 자매결연 현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5년 8월 24일 가산면 금현4리와 삼성화재 동서울지점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포도가지치기 기술을 설명하는 농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삼성화재 동서울지점 직원들.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⑩ (주)마블히스랜드

끌과 정 대신 화학약품 활용 석재 가공



대표이사 최창희

신용과 성실,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화학약품 이용, 대리석 건축용 타일, 바닥문양 및 미끄럼방지제품, 교육용 교재 등을 생산하는 (주)마블히스랜드(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85-11, 대표이사 최창희).

천연대리석을 가공하는 특화기술 전문업체인 (주)마블히스랜드는 10여년의 연구 끝에 석재 가공의 획기적인 기술개발로 1996년 특허를 취득했으며, 기존 석재가공 기술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섬세한 부분은 물론 대량생산으로 원가절감을 실현했다. 기존 가공제품보다 1/10의 제작비로 보다 세련되고 정교해진 표현기법, 수요를

양이나 조각, 관공 공예품, 각종 로고, 종교용 기구, 교육용 기자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마블히스랜드 최창희 대표이사가 돌 가공 업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6년으로 당시 석재공장을 하던 친구를 만나 직원들이 속을 썩인다는 말을 듣고서라고 한다.

당시 다른 업체에 종사하는 최 대표이사는 우연히 '돌을 녹이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화공에 문의하던 최 대표이사는 처음에는 가스를 이용해 작업을 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한동안 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다.

이후 3년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달린 결과 화학약품을 이용한 석재 가공기술을 발견하고 충주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던 친구의 도움으로 특허출원과 실용실안을 신청하게 된다. 또 90년 제1회 석재가공 전시회를 비롯한 중국, 이태리, 프랑스, 싱가포르 등 석재관련 외국을 방문하면서 연구를 거듭했다.

이후 특허출원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인 S물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시켰으나 S물산이 화학약품을 이용한 석재가공 기술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 계약을 파기했다.

최 대표이사는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기술을 되찾아 오는데 변호사와 변호사 비용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낭비했다'고 한다. 이후 유리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하려고 했

천연대리석 저렴한 가격 그림과 글씨 문양가능 "건축자재 품격높여 주는 한국적 인상 접목 꿈"

충족시키는 대량생산 수공제작으로 예술성과 사업성이 돋보이는 마블아트는 21세기 각광받는 건축자재 및 교육기자재 사업이다.

기존 석재가공 기술인 샌드 블라스트 공법으로는 대량생산이나 생산원가 절감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허를 받은 (주)마블히스랜드 석재가공 기술은 천연 대리석을 원하는 그림이나 글씨 등을 음각이나 양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기존 제품에 비해 1/1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마블히스랜드 제품의 특징은 ▶다양한 색상 천연 대리석을 고객이 원하는 그림과 글씨 등을 음각이나 양각 혹은 깊이 조절이 가능 ▶원복 복제가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않으며 ▶화학적 처리 기법이지만 인체에 무해 등이다.

또 이들 제품은 건축 인테리어 제품으로 현관 로비의 대형벽화, 욕실바닥재 혹은 벽체 등에 문

나 특허 출원한 기술만 요구해 결국 협약을 파기시키고 특허를 찾아오는데 힘겨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도 최 대표이사는 돌 가공업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고 또다시 석재가공과 원석이 많은 중국이나 이태리 등을 외국을 방문해 석재관련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자신은 물론 주변환경과 끝없는 싸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96년 특허기술 등록을 마쳤다. (주)마블히스랜드가 포천으로 이주한 것은 2002년9월이다.

최 대표이사는 "같은 건물이라도 할지라도 품격을 높여주고 한국적 인상이 풍겨나오는 석재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서 "값이 저렴하고 예술적 품격이 있는 건축자재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체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arblehand.com 확인하면 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시선은 대리석을 이용한 로고제품이다. (주)마블히스랜드는 계단 천명조각, 성화, 시칠벽화, 교육용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재테크 ⑩

정보가 돈이다, 재테크 책을 읽자!

가을인가 했는데 어느새 바람이 쌀쌀해진 것이 겨울 가까이 와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냥 이렇게 가을을 보내기엔 아쉬움이 너무 크다. 아직 남아있는 가을의 여운을 잡고 책을 읽어보자.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이 재테크다 보니 관련 책들도 매우 다양하게 나온다. 20대, 30대, 40대 등 세대별 전략을 다룬 책들도 있고, 3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등 재무 목표를 내세우는 책들도 있다. 또 직장인들을 위한 책이나 미혼 여성 또는 가정주부를 위한 책 등 제목을 가지가지로 만들어서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중 가장 실속 있는 내용을 담은 책 몇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자가 되려면 은행을 떠나라(심영철) 여러 증권사와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현재 인터넷 웰시안닷컴의 대표인 저자는 은

행을 재테크를 위한 최고의 투자처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한다. 이미 은행의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분도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1부에서는 은행이 왜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 '최대의 적'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2부에서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각종 상품들과 제2금융권의 상품들을 비교, 분석한다. 예금, 적금, 펀드, 연금, 부동산 등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을 상세하게 파헤치고 그 상품들이 제2금융권 상품에 비해 얼마나 수익률에서 뒤처지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은행과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재테크의 시대가 저무는 현 상황에서 새롭게 가져야 할 재테크 마인드를 제시한다. 한국의 젊은 부자(박용석) 출

간 후 많은 호응을 얻은 책. 정정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저자가 현금지산 20억 이상을 보유한 176명의 젊은 부자들을 일일이 심층 인터뷰하여 쓸 글이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하고 생생한 성공 노하우가 가득하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는지, 왜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입체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늘 원칙은 간단하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것!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고득성, 정성진, 최병희)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거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지갯빛 환호기'를 꿈꾸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생각이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이상,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가 찾아올 리가 없다. 그렇다면 담당하고 할기 넘치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35세 직장인을 내세워 준비 없는 노후가 어떤 모습 일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각성한 주인공이 차근차근 생애계획을 세워나가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천적 노후대책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읽어야 할 책, 읽고 싶은 책은 너무나 많다. 가을이 사라지기 전에 적어도 세 권의 책을 읽는다면 오는 겨울이 두렵지 않을 것 같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1.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거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세대 여부 판정 1세대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교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책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 세대 인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용해로 유압실린더 보수 작업중 작동유 누출로 협착

▲재해발생 개요

공장내 주조공정에서 경동식용해로 유압배관의 유압작동유 누출유무를 확인 및 보수하기 위해 용해로를 경사지게 기울인 상태에서 유압실린더 볼트를 점검하던 중 작동유가 누출되면서 용해로가 원상대로 복귀되어 용해로와 유압실린더 사이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가. 중공성형기 안전문 연동장치 기능제거 2개가 설치되어 문을 열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연동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나 리미트스위치를 끈으로 묶어 놓아 연동장치가 해지된 상태(미사용 및 미작동)에서 위험 지역내 출입하였음. 나. 중공성형기 정비 미실시 1. 중공성형기의 압출 헤드와 아답터 사이의 연결부 체결상태가 불량하여 펄소 원료가 새어나오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나 사전 정비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운전중 협착 위험지역에 출입하였음.

▲중동재해 예방대책

가. 중공성형기 안전문 연동장치



재해발생상황도

사용

· 금형사이에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협착 또는 밀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안전문을 열면 기계가 정지되는 연동장치를 항상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나. 중공성형기의 정비실시 1. 중공성형기의 결합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한 작업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비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게시, 교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이민은 가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

10년 이상 가입해 연금수령대상자면 가능

이민자가 은행으로 달러·원화 선택 지급, 한국의 친척이 대신 받을 수도 연금을 받는 데는 전혀 상관없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될 경우 미국 계좌를 주면 그 쪽으로 국민연금을 보내준다.

원화로도 지급하고, 외화로도 지급한다. 외화로 지급할 경우 보통 미국 달러가 통용된다고 봐도 좋다.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됐다면 한국에 있을 때와 동일하다고 봐도 좋다.

10년이라는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납입한 부분에 대해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다. 이 때는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쨌든 이민을 간다고 해도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단순 체류의 경우는 국민연금 반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령은 문제가 없지만 가입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경우 가입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유학 등 단순 체류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엔 국민연금 고지서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